

남자 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성에 관한 연구

김 현 미¹⁾ · 안 효 자²⁾ · 손 정 태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상 대상자들이 자신의 내적, 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정체성과 새로운 적응방식 및 대처기술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만약 이 시기에 자신의 욕구와 갈등을 적절히 수용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긴장 완화나 반항,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약물 사용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Redston-Iselin, 2005). Yoo의 연구(Byun & Lee, 2005에 인용됨)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와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자주적인 의사결정이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방식, 건강한 생활양식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인어서 더욱 위기상황을 만든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약물사용의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다. 청소년들은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약점과 내적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또래집단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 때로는 동료의 압력에 의해서 혹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실험적으로 약물을 사용해보는 경우도 있다(Laraia & Jefferson, 2005). 그러나 그 요인이 무엇이든 청소년 시기의 약물사용은 인지적 처리과정을 제한하며, 정서장애를 초래하고,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

키는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무단결석, 성적 저하, 비행, 폭력, 절도, 범죄 등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므로, 흔히 사회적 위기감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Faltz & Wing, 2005; Garnier & Stein, 2002).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약물남용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협의의 약물은 흔히 마약류로 일컬어지는 헤로인 대마, 메스암페타민 등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약물은 체험이나 의식의 변화 등 특정한 작용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사용되는 정신활성물질을 지칭하고, 여기에는 술, 담배, 신경안정제, 중추신경 자극제, 본드, 가스, 불법약물인 마약류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약물사용은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원활히 하거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또는 의식의 변화나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Faltz & Wing, 2005). 이러한 약물사용은 대개 청소년 초기에 술이나 담배, 불법약물 등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Garnier와 Stein(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 55%가 고등학교 때 불법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65%는 흡연 경험이 있으며 80%는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약물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Government Youth Commission(2001)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70.5%가 음주 경험이 있고 29.2%가 흡연 경험이 있으며 2.1%의 학생은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주요어 : 남자 청소년, 약물사용 위험성

- 1)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hyunmi@dhu.ac.kr)
 -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보건센터 간호사, 대구산업정보대학 간호과 겸임교수
 - 3)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투고일: 2007년 10월 1일 심사완료일: 2007년 10월 28일

였다. 또한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ng(2004)의 연구에서는 70.5%가 음주 경험이 있고 30.4%가 흡연 경험이 있으며 0.9%가 흡입제를 사용하였고 0.5%가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들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흡연, 음주 및 약물사용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사용 문제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가 더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약물사용은 대상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성인으로서의 정체감 발달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조장하여 건강한 성숙을 지연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성인의 심각한 약물중독이나 사회병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Faltz & Wing, 2005; Vega, Zimmerman, Warheit, Apospori, & Gil, 1993).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및 치료 전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Vega 등(1993)은 청소년 자신의 자존감 저하, 우울 증상, 자살 시도, 선배나 동료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비규범적인 행동이나 비행행동, 부모의 흡연, 가족의 약물남용 문제, 가족의 자긍심 저하 등을 약물사용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10대의 청소년들은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상대적으로 가족들과는 적은 시간을 보내므로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동료들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약물사용 경험 역시 또래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통제해야 하는 성인의 기능 부재, 성인 자체의 도덕적 결함, 청소년들의 좌절이나 무료함을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부족도 약물사용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Morojele, Brook, & Kachieng'a, 2006; Redston-Iselin, 2005).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가족, 또래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체계와 같은 선행인자들에 초점을 주고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고,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Garnier & Stein,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돌아볼 때,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비행, 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위기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약물사용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1), Kong(2004), Kim(2006), Lee, Kim과 Kweon(2006), Moon(2006) 등이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단순한 약물사용 실태 조사에 그쳤다. 단지 Lee 등(2006)의 연구에서만 척도를 사용하여 약물사용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선별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예방대책과 중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대상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특히 약물사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위험성의 실태와 약물사용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파악하고, 약물사용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확인함으로써 약물사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위험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위험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약물사용 고위험군의 분포를 6개 하위영역별로 확인한다.

용어 정의

● 남자 청소년

일반적으로 11-20세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남자(Redston-Iselin, 2005)를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1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 전체를 말한다.

● 약물사용 위험성

아편제, 진정수면제, 중추신경자극제, 환각제, 흡입제, 대마, 니코틴, 카페인 등을 사용하여 남용이나 의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Faltz & Wing, 2005)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1996)이 개발한 청소년 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검사(High Risk Group Adolescent Drug User Screening Test: HIRIGADUST)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대구시 S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 위험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사용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이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1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 전원이었다. 자료수집은 추후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먼저 방학 중 학교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설문조사 실시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보충수업 기간과 학기 중에 센터 직원들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총 987부 중 설문조사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5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93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8월 5일부터 10월30일까지였다.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7문항, 약물사용 관련 특성에 대한 10문항, 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70문항 등 총 8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 및 약물사용 관련 특성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팀이 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중 약물사용 관련 특성에는 음주, 흡연, 약물사용의 3가지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는 광의의 의미의 약물에는 신경안정제, 흥분제, 본드, 가스, 불법약물인 마약류 외에도 술과 담배가 포함되고(Faltz & Wing, 2005), 또 술과 담배는 약물사용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Park, Eun, & Jeong, 1999).

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1996)이 개발한 청소년 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검사(High Risk Group Adolescent Drug User Screening Test: HIRIGADUST)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제 1부 개인 및 주변 환경(12문항), 제 2부 친구 및 학교와 개인 생활(12문항), 제 3부 성격 및 가치관(12문항), 제 4부

학생들의 부모님 술 문제 걱정(10문항), 제 5부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12문항), 제 6부 집안 내력이나 부모님 특징(12문항)의 총 6개 부분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2, 3, 5, 6부분의 경우, 1-8번 문항은 1문항 당 8점 만점, 9-12문항은 1문항 당 9점 만점이고, 제 4부분은 1문항 당 10점 만점이다. 점수를 부여할 때는 8점 만점 문항의 경우는 '그렇다'에 8점, '애매하다'에 4점, '아니다'에 0점을 주고, 9점 만점 문항의 경우는 '그렇다'에 9점, '애매하다'에 4.5점, '아니다'에 0점을 준다. 또 10점 만점 문항의 경우에는 '그렇다'에 10점, '애매하다'에 5점, '아니다'에 0점을 준다. 이 중 제 1부분은 20점, 제 2부분은 45점, 제 3부분은 32점, 제 4부분은 27점, 제 5부분은 40점, 제 6부분은 14점 이상일 때 약물사용 고위험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 6개 부분에 대한 평균 점수가 총 32점 이상이면 약물사용 고위험군으로 판정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288$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약물사용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약물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위험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 대상자의 6개 하위영역별 약물사용 고위험군의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위치한 1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1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44.6%, 전문계 학생이 55.4%이었고, 성격은 활동적인 경우가 50.6%, 내성적인 경우가 49.5%로 비슷하였다. 학교성적은 중위권, 가정경제 상태는 보통이라고 답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933)

Characteristics	Class	n(%)
School type	High school	416 (44.6)
	Vocational high school	517 (55.4)
Personality	Extrovert	456 (50.6)
	Introvert	446 (49.5)
Academic performance	High grade	153 (16.7)
	Middle grade	513 (56.1)
	Low grade	248 (27.1)
Economic Status	Rich	170 (18.6)
	Moderate	577 (63.3)
	Poor	165 (18.1)
Living Condition	Living with parents	792 (87.5)
	Living with father or mother	24 (2.7)
	Living alone	89 (9.8)
Parents' Interest	High	624 (68.6)
	Moderate	265 (29.1)
	Low	21 (2.3)
Conversation with parents	Frequent	330 (36.2)
	Moderate	418 (45.9)
	Less frequent	163 (17.9)

Note) Missing cases were excluded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에서는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관심도는 높은 편이라고 답한 학생이 6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와의 대화정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은 음주, 흡연, 약물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먼저 음주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64.5%이었다.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첫 음주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인 경우도 32.8%로 해당 대상자 중 88.4%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빈도는 6개월에 1회 이하가 40.7%이었고, 그 다음이 1개월에 1-2회로 36.3%를 차지하였다. 1주일에 1-2회 마시는 경우도 16.4%있었다. 음주량은 1회에 1/2병 이하가 65.6%로 가장 많았다.

흡연과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Table 2> Drug us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933)

Characteristics	Class	n(%)	
Drinking	Drinking experience	Have	602 (64.5)
		Have not	331 (35.5)
	Starting point for drinking	Elementary school	196 (32.8)
		Middle school	332 (55.6)
		High school	69 (11.6)
	Frequency of drinking (time)	≤1/6month	239 (40.7)
		1-2/month	213 (36.3)
		1-2/week	96 (16.4)
		Almost every day	39 (6.6)
	Amount of drinking (bottle/time)	<½	381 (65.6)
½-1		126 (21.7)	
>1		74 (12.7)	
Subtotal		602 (100)	
Smoking	Smoking experience	Have	376 (40.3)
		Have not	557 (59.7)
	Starting point for smoking	Elementary school	143 (39.6)
		Middle school	189 (51.7)
		High school	37 (8.7)
	Amount of smoking (pack/day)	<½	253 (65.0)
		½-1	79 (23.6)
>1	38 (11.4)		
Subtotal		376 (100)	
Drug using	Drug using experience	Have	19 (2.0)
		Have not	914 (98.0)
	Starting point for drug use	Elementary school	7 (43.8)
		Middle school	3 (18.8)
		High school	6 (37.5)
	Frequency of drug use (time./month)	≤1	10 (62.5)
		2-4	5 (31.3)
≥5	1 (6.3)		
Subtotal		19 (100)	

Note) Missing cases were excluded

40.3%, 없는 경우가 59.7%이었다.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첫 흡연 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51.7%이었고, 초등학교인 경우도 39.6%로 해당 대상자의 91.3%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흡연을 한 경험이 있었다. 흡연량은 하루에 반 갑 이하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1갑 이상을 피우는 경우도 11.4%이었다.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본드, 신나, 흡입제, 대마초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대상자는 2.0%이었고, 없는 경우가 9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해당 대상자 중 첫 약물사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라고 답한 경우가 43.8%, 고등학교라고 답한 경우가 37.5%이었다. 약물사용 횟수는 1개월에 1회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위험성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HIRIGADUST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 유형($t=7.20, p=.000$), 성격($t=3.28, p=.001$), 학교성적($F=38.82, p=.000$), 가정경제 상태($F=41.39, p=.000$), 부모와의 대화 정도($t=25.45, p=.000$)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유형과 관련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HIRIGADUST 점수가 평균 21.43 ± 12.94 점, 전문계 고등학교는 평균 27.76 ± 14.01 점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전문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20, p=.000$). 성격은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내향적이라고 답한 학생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학교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상위권이나 중위권인 학생보다, 가족경제 상태가 어려운

학생이 좋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거주형태에서는 한쪽 부모하고만 동거하는 학생이 혼자 사는 학생이나 양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고, 또 혼자 사는 학생은 양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학생이 자주 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 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한편, 거주형태에서는 한쪽 부모와만 동거하는 경우가 24명으로 전체의 2.7%인 반면에 양쪽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87.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 부모의 관심도에서는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1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 반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8.6%이었다. 따라서 30명 이하의 대상자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할 수 없고, 또 이 집단을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기에는 통계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거주형태와 부모의 관심도에 따른 HIRIGADUST 점수의 차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위험성의 차이

약물사용 관련 특성 중 약물 부분은 사용경험이 있는 학생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음주 및 흡연 특성에 따라 HIRIGADUST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음주 부분에서는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없다고 한 학생들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t=13.86, p=.000$).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음주빈도($F=36.95, p=.000$)와 음주량($t=16.78, p=.000$)에

<Table 3> Risk of drug abuse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n=933)

Characteristics	Class	Risk of drug abuse			
		M±SD	t or F	p	Scheffe
School type	High school	21.43±12.94	7.20	.000	
	Vocational high school	27.76±14.01			
Personality	Extrovert	27.91±13.57	3.28	.001	
	Introvert	24.25±24.66			
Academic performance	High grade	22.83±13.15	38.82	.000	a,b<c
	Middle grade	24.27±13.69			
	Low grade	32.01±14.34			
Economic status	Rich	23.60±14.68	41.39	.000	a,b<c
	Moderate	24.80±13.25			
	Poor	34.20±14.49			
Conversation with parents	Frequent	24.58±14.37	25.45	.000	a,b<c
	Moderate	25.26±13.00			
	Less frequent	32.89±15.43			

Note) Living condition and parents' interest were excluded because of sample distribution inappropriate for data analysis.

<Table 4> Risk of drug abuse depending on drug using-related characteristics

(n=933)

Characteristics	Class	Risk of drug abuse					
		M±SD	t or F	p	Scheffe		
Drinking	Drinking experience	Have	30.25±14.53	13.86	.000		
		Have not	19.03±11.39				
	Starting point for drinking	Elementary school	31.49±15.24	2.55	.079		
		Middle school	29.89±14.15				
		High school	27.27±14.60				
	Frequency of drinking (time)	≤1/6month	27.06±11.97	36.95	.000		a<b,c,d b,c<d
		1-2/month	35.05±14.03				
1-2/week		39.88±13.60					
Almost every day		55.76±12.40					
Amount of drinking (bottle/time)	<½	25.27±14.02	16.78	.000	a,b<c		
	½-1	28.34±14.72					
	>1	37.77±13.89					
Smoking	Smoking experience	Have	34.15±14.61	17.59	.000		
		Have not	20.03±10.89				
	Starting point for smoking	Elementary school	35.30±14.97	3.28	.103		
		Middle school	34.27±13.90				
		High school	30.13±16.92				
	Amount of smoking (pack/day)	<½	32.67±13.06	24.63	.000		a<c
		½-1	37.91±13.23				
>1		44.68±14.15					

Note) Drug using was excluded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the students who have drug using experience.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를 사후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빈도가 월 1-2회 이상인 학생들이 6개월에 1회 이하인 학생들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고, 그 중에서도 거의 매일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월 1-2회 또는 주 1-2회인 학생들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음주량이 1회에 1병 이상인 학생이 그 미만인 학생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흡연 부분에서는 흡연경험(t=17.59, p=.000), 흡연량(F=24.63,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사후분석 결과, 흡연량이 하루에 1갑 이상인 학생이 반갑 미만인 학생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개 하위영역별 약물사용 고위험군의 분포

대상자의 약물사용 고위험군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 27.2%가 HIRIGADUST의 평균 점수가 32점 이상으로 측정되어 약물사용 고위험군에 해당되었다. 이를 6개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본 결과, 제 1부 개인 및 주변 환경 부분에서는 32.2%, 제 2부 친구 및 학교와 개인 생활 부분에서는 25.4%, 제 3부 성격 및 가치관 부분에서는 48.0%, 제 4부 학생들의 부모님 술 문제 걱정 부분에서는 36.4%, 제 5부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 부분에서는 35.6%, 제 6부 집안 내력이나 부모님 특징 부분에서는 36.2%가 약물사용 고위험군에 해당되었다.

논 의

청소년기는 독립성과 자아 정체감 확립 등 고유의 발달과업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성인기의 건강한 적응

<Table 5> Distribution of the high-risk drug abuse group

(n=933)

Characteristics	High-risk group n(%)	Non high-risk group n(%)
Risk of drug abuse (total)	254(27.2)	679(72.8)
Individual and surroundings	300(32.2)	633(67.8)
Friends, school life and privacy	237(25.4)	696(74.6)
Personality and values	448(48.0)	485(52.0)
Worries about parent's drinking problem	340(36.4)	593(63.6)
Mental and health problem	332(35.6)	601(64.4)
Family affairs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338(36.2)	595(63.8)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청소년기의 대상자들은 주위의 여러 영향요인들에 의해 일탈행동이나 사회심리적 부적응상태에 빠져들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므로, 이시기에는 약물사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사용은 성인에게도 해롭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심각성의 정도가 더 심하고 약물남용으로의 진행속도도 더 빠르다(Winters, 2006). 따라서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부모 및 기타 관계자들이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인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약물사용 관련 특성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 중 음주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64.5%이었다. 이는 광주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음주경험률이 60.15%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거의 음주경험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는데, 먼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Government Youth Commission(2001)의 조사에서는 음주경험률이 70.5%,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 등(2003)의 연구에서는 82.1%, Kong(2004)의 연구에서는 70.5%이었다. 이들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70% 이상이 음주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한 없이 이전에 음주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의 음주경험률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 연구결과에 비해 음주경험률이 다소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hope, Elliott, Raughnathan과 Waller(2001)의 연구에서 최근 1년간 음주율이 40.4%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전통적으로 관대하며(Kim, Kim, Kim, & Kim, 2007) 술을 권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므로, 이것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쉽게 술을 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이 술은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 하는 일차적인 관문(Joo & Cho, 1997)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술문화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첫 음주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32.8%로 해당 대상자 중 88% 정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 등(2003)의 연구에서도 첫 음주시기가 중학교 53.4%, 초등학교 이전 및 초등학교 28.9%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최근 첫 음주 시기가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는 점(Kodjo & Klein, 2002)과, 음주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습관적 음주를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Lee, Lee, & Kang, 1998)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대한 지도가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음주빈도는 6개월에 1회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여 1개월에 1-2회 이하인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77%이었다. 이는 1998년에 같은 음주 빈도 기준을 사용하여 조사한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의 결과에서 1개월에 1-2회 이하인 경우가 84.1%로 보고된 것보다는 다소 낮았다. 사용한 음주 빈도 기준이 다르고 조사 지역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003년에 실시한 Yang 등의 연구에서 1개월에 1회 이하가 73.2%로 조사된 것보다는 다소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 중 1주일에 1-2회 마시는 경우가 16.4% 있었고, 거의 매일마신다라고 답한 대상자도 6.6% 있었다. 이는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1998)의 조사에서 1주일에 1-2회 마시는 경우가 13.7%, 거의 매일마신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2.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본 연구는 일개 시의 일부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만으로 음주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유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Bailey의 연구(Park et al., 1999에 인용됨)에서 음주에서 가장 문제 시 되는 것은 음주 빈도이며, 고등학교 음주 유행험자의 6-10%가 나중에 알코올의존자로 남게 된다고 보고한 것과, Winters와 Fahnhorst(2005)가 청소년 음주는 약물남용 및 중독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등학교 음주 조사에서 빈도에 대한 조사가 더 상세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음주 지도 시에도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흡연과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40.3%이었는데, 이는 광주시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최근 1년간 흡연경험률이 22.9%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로,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ng(2004)의 연구에서 흡연경험률이 30.4%,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2006)의 연구에서 28.5%로 보고한 것과 비교해서도 약간 높았는데, 이는 이들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흡연경험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보다 흡연경험률이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도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첫 흡연 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51.7%이었고, 초등학교인 경우도 39.6%로 해당 대상자의 90% 정도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흡연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흡연예방에 대한 지도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적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학교 때부터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조기흡연은 성인기의 흡연여부와 흡연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자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Choi & Kang, 2004),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불법약물사용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본드, 신나, 흡입제, 대마초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대상자는 2.0%이었다. 광주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6)의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약물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이 3.5%이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이 아닌 과거의 경험을 조사한 경우로,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ng(2004)의 연구에서는 1.49%,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2006)의 연구에서는 1%가 불법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비해 지방 청소년들의 불법약물 사용 경험률이 다소 높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1999년에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ung, 2003에 인용됨)가 1975-1998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의 불법약물 사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56%가 이것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률은 훨씬 낮은 수치이다.

첫 약물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oo와 Cho(1997)의 연구와,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200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때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Redston-Iselin(2005)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물남용 연령이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20세 이전에 처음으로 약물사용을 시작한 대상자들은 그 후로도 계속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남자 청소년의 70-90%와 여자 청소년의 50-60%는 성인기에도 지속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때의 약물사용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약물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생각된다.

약물사용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교유형과 관련해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HIRIGADUST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전문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Government Youth

Commission(2001)의 연구에서 전문계 고등학생의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같은 척도는 아니나 광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6)의 연구에서도 전문계 고등학생의 약물사용 가능성이 인문계 고등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약물사용에 대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때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Redston-Iselin(2005)은 약물사용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스트레스라고 보고하였으므로, 인문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약물사용 예방에 대한 교육 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내향적이라고 한 학생들 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학교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상위권이나 중위권인 학생보다, 또 가족 경제상태가 어려운 학생이 좋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학생이 자주 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 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광주시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2006)의 연구와 Lee 등(2006)의 연구에서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속할수록, 가족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잠재적 약물문제 정도가 더 높았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1998)의 연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화목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화목하거나 그저 그런 편이라고 답한 학생들보다 음주, 흡연, 약물 사용률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대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ong(199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술과 담배인데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술과 담배의 남용률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약물사용 위험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고등학교 시기가 대학 입학에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때이므로 성적 불량과 같은 부적응 현상이 청소년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Anderson과 Henry(1994)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관계, 가족 결속력이 높을수록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감소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으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대화정도를 '자주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자주하지 않는 편이다'로 측정하였지만, Moon(2006)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화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10분-30분인 경우, 30분-1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으므로 그 세부적인 시간 단계들 간의 차이를 명백히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격의 내향성과 외향성에 따른 약물사용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는 없어 비교가 어려웠다.

약물사용 관련 특성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없다고 한 학생들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음주빈도가 잦은 학생들의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음주량이 1회에 1명 이상인 학생이 그 미만인 학생보다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았다. 흡연 부분에서도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또 흡연량이 하루에 1갑 이상인 학생이 반갑 미만인 학생들에 비해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사용집단은 약물무경험집단보다 음주 및 흡연률이 높다는 Joo와 Cho(199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실제로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약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술과 담배를 사용하므로, 음주와 흡연은 약물사용의 위험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David, Edward, David, & Alan, 2000).

주목할 만한 것은, 음주경험이 있는 64.5%의 학생들의 HARVIGUST 점수는 30.25±14.53점으로 고위험군의 기준인 32점 보다 약간 낮았고, 흡연경험이 있는 40.3%의 학생들의 HARVIGUST 점수는 평균 34.15±14.61점으로 약물사용 고위험군에 해당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흡연은 심각한 약물남용의 전단계로 볼 수 있으며(Heo, 2006), 흡연 청소년의 약물사용 비율이 음주 청소년의 약물사용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Jeon과 Kwon(199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음주 및 흡연 지도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예방대책과 계몽교육을 통해 약물사용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대상자의 6개 하위영역별 약물사용 고위험군의 분포

대상자의 약물사용 고위험군의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27.2%가 약물사용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대구지역 남자 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성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

었다.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Government Youth Commission(200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33%가 약물사용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개 지역의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유추하기는 어렵다. 한편, 같은 척도는 아니나 광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6)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약 18%가 약물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6개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본 결과, 개인 및 주변 환경 부분에서는 32.2%, 친구 및 학교와 개인 생활 부분에서는 25.4%, 성격 및 가치관 부분에서는 48.0%, 학생들의 부모님 술 문제 걱정 부분에서는 36.4%, 심리 및 건강상의 문제 부분에서는 35.6%, 집안 내력이나 부모님 특징 부분에서는 36.2%가 약물사용 고위험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사용 위험성이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격 및 가치관과 학생들의 부모님 술 문제 걱정, 집안 내력이나 부모님 특징 부분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전남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1999)의 연구에서는 성격과 청소년의 가치관은 약물남용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 및 윤리적 가치관 교육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 양육 태도에 일관성이 없고 부정적인 대화패턴과 불명확한 행동한계를 가지므로 가족갈등과 비행은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가족갈등과 비행은 더 나아가 청소년 약물사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 개인의 가치관과 부모의 술 및 약물사용은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매우 관련이 깊은 요인 중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사용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는 도덕 및 윤리적 가치관 교육과 부모님의 술 및 약물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남자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성 실태와 약물사용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1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남학생 933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8월 5일부터 10

월 30일까지 이었다. 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로는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1996)이 개발한 청소년 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검사표(High Risk Group Adolescent Drug User Screening Test: HIRIGADUST)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 test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 중 음주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64.5% 이었다. 첫 음주 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인 경우도 32.8%로 해당 대상자 중 88.4%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빈도는 6개월에 1회 이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개월에 1-2회 순이었다. 음주량은 1회에 1/2병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흡연과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40.3% 이었다. 첫 흡연 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51.7%이었고, 초등학교인 경우도 39.6%로 해당 대상자의 91.3%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흡연을 한 경험이 있었다. 흡연량은 하루에 반 갑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본드, 신나, 흡입제, 대마초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대상자는 2.0%이었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HIRIGADUST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 유형($t=7.20, p=.000$), 성격($t=3.28, p=.001$), 학교성적($F=38.82, p=.000$), 가정경제 상태($F=41.39, p=.000$), 부모와의 대화 정도($t=25.45, p=.000$)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약물사용 관련 특성에 따라 HIRIGADUST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음주경험($t=13.86, p=.000$), 음주 빈도($F=36.95, p=.000$), 음주량($t=16.78, p=.000$), 흡연경험($t=17.59, p=.000$), 흡연량($F=24.63,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약물사용 고위험군의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27.2%가 약물사용 고위험군에 해당되었다.

청소년기는 주요 정신질환들이 발생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약물사용의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므로, 그 동기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고(Redston-Iselin, 2005), 청소년 약물사용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기와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적합한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역시 청소년들의 인구·환경적 특성 및 약물사용 관련 특성과 욕구에 맞게 개발되어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최근 음주, 흡연, 불법약물 사용자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 또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차별을 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내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음주, 흡연, 불법약물 사용의 습관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에 근거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 내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필요시 약물사용과 관련된 전문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nderson, A. R., & Henry, C. S. (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dolescence, 29*, 405-420.
- Byun, Y. S., & Lee, H. Y. (2005). A study on health 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2*(3), 413-420.
- Choi, Y. M., & Kang, H. S. (2004). An experiment to test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n prevention of smo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1*(3), 335-343.
- Chung, S. K. (2003). An application of the primary socialization theory to alcohol and drug-related crime among american youth on proba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5*(1), 129-141.
- David, J. D., Edward, M. A., David, R. O., & Alan, C. O. (2000). Age at first alcohol use: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alcohol disorders. *Am J Psychiatry, 157*(5), 745-750.
- Faltz, B. G., & Wing, R. V. (2005). Substance use disorders. In M. A. Boyd (Eds.). *Psychiatric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 (pp. 524-564).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Garnier, H. E., & Stein, J. A. (2002). An 18-year model of family and peer effects on adolescent drug use and delinquency. *J Youth Adolesc, 31*(1), 45-56.
- 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1). *A report abou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buse for the adolescent* (Publication No. 11-1150000-000095-01). Seoul: Government Youth Commission.
- Heo, S. U. (2006). A study on solutions to the juvenile drug abu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2), 1-28.
- Jeon, G. Y., & Kwon, M. Y. (1999). A study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drug abuse adolescents. *Korean Journal*

- of *Family Social Work*, 3(2), 1-90.
- Jeong, H. S. (1998). Prevalence and preventive strategies of adolescent drug abuse. *Journal of Pyoungtaek University*, 10(1), 113-138.
- Joo, W. K., & Cho, Y. C. (1997). National survey on adolescent drug abu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4(1), 169-181.
- Kim, G. J. (2006). *A study on the juveniles' drug abuse and the prevention progra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Kim, J. I., Kim, J. S., Kim, K. H., & Kim, J. S. (2007). Influences of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motives for drinking on drinking permissiveness i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4(3), 382-390.
- Kodjo, C. M., & Klein, J. D. (2002). Prevention and risk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The role of adolescents, families, and communities. *Pediatr Clin North Am*, 49, 257-268.
- Kong, J. M. (2004).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the effective adolescent drug abusing preven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gguk University, Seoul.
-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996).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plan of adolescent drug abuse*. Seoul: Korea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1998). *A survey on adolescent drug abuse*. (Publication No. HanMaKi 98-33-154). Seoul: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 Laraia, M. T., & Jefferson, L. V. (2005). Chemically mediated responses and substance-related disorders. In Stuart, G. W., & Laraia, M. T. (Ed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pp. 473-516). St. Louis, Missouri: Mosby.
- Lee, C. S., Kim, S. J., & Kweon, Y. R. (2006). A study on adolescents' drug abuse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potential drug use in a cit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City. *J Korean Psychiatr Ment Health Nurs Acad Soc*, 15(1), 76-88.
- Lee, Y. S., Lee, H. R., & Kang, Y. J. (1998). Smoking, alcohol and other drug use in Korean adolescents. *J Korean Acad Fam Med*, 19(1), 43-57.
- Moon, H. R. (2006). *A study on the drug abuse of teenagers and its countermeasures: Mainly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Morojele, N. K., Brook, J. S., & Kachieng'a, M. A. (2006). Perceptions of sexual risk behaviors and substance abuse among adolescents in South Africa: A qualitative investigation. *AIDS Care*, 18(3), 215-219.
- Park, C. S., Eun, C. Y., & Jeong, M. Y. (1999). A study on the reality of drug use, acknowledge, attitude and associated variable of adolescent focused on Chunnam a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6(1), 73-101
- Redston-Iselin, A. (2005).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In Stuart, G. W., & Laraia, M. T. (Ed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pp. 753-776). St. Louis, Missouri: Mosby.
- Shope, J. T, Elliott, M. R., Raughnathan, T. E., & Waller, P. F. (2001). Long-term follow-up of a high school alcohol misuse prevention program's effect on students' subsequent driving. *Alcohol Clin Exp Res*, 25(3), 403-410.
- Vega, W. M., Zimmerman, R. S., Warheit, G. J., Apospori, E., & Gil, A. G. (1993). Risk factors for early adolescent drug use in four ethnic and racial groups. *Am J Public Health*, 83(2), 185-189.
- Winters, K. C. (2006). Introduction: Progress in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drug abuse. *J Child Adolesc Subst Abuse*, 16(1), 1-4.
- Winters, K., & Fahnhorst, T. (2005). Assessment issues in adolescent drug abuse treatment research. *Recent Dev Alcohol*, 17, 409-425.
- Yang, S., Park, H. R., Sohng, K. Y., Kim, N. C., Jo, S. J., & Moon, J. S. (2003). High school students' alcohol use and related factors. *J Korean Psychiatr Ment Health Nurs Acad Soc*, 12(3), 319-328.

A Study on the Risk of Drug Use by Male Adolescents

Kim, Hyeon Mi¹⁾ · An, Hyo Ja²⁾ · Son, Jung Tae³⁾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2) Nurse, Dalseonggun Mental Health Center; Adjunct Professor, Daegu Polytechnic College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was to identify the risk of drug use by adolescent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933 male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a high school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 5th to Oct. 30th, 2004. The instrument was the High Risk Group Adolescent Drug User Screening Test (HIRIGADUST) developed by the Korea Adolescent Society (199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Results:** For substance use, 64.5%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drunk, 40.3% that they had smoked, and 2.0% that they had tried drug

use. For scores on HIRIGADUST regard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school type, personality, academic performance, economic status, and ability to talk with parents. For scores on HIRIGADUST regarding drug using-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drinking experience, frequency of drinking, amount of alcohol intake, smoking experience and number of cigarettes smoked. Of the students 27.2% students were in the high risk group. **Conclusion:** In schools, systematic and intensive assessment of drug use should be done, and if needed, a service system connected to clinics specializing in drug addiction should be established.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ously.

Key words : Adolescent, Substance-related disorde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oen Mi*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eong-gu, Daegu 706-060, Korea

Tel: 82-53-770-2281 Fax: 82-53-770-2286 E-mail: hyunmi@dhu.ac.kr